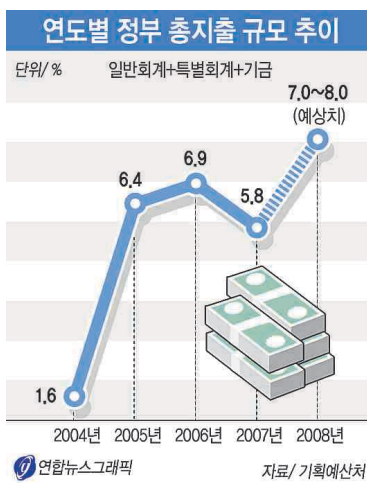


‘증가율 최고’ 내년 정부 총지출

나라살림 건전성 유지될까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여파... 여유재원 활용 해결 쉽지 않을 듯

내년에는 정부의 예산·기금 등 총지출 증가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은 7~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달에 정치권이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을 선심성으로 의결한 데 따른 현상으로 별도의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제발행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다.



경상성장률의 차이(0~1%포인트)로 인해 최대 2조4천억원 가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에 실질성장률이 5%에 못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원 부족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출할 돈이 모자라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권이 지난달 말에 기초노령 연금을 도입했기 때문. 이로 인한 필요 예산은 2008년 2조4천억원, 2009년 3조2천억원, 2010년 3조5천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부문은 보상과 함께 경쟁력 있는 분야로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경제·사회시스템이 선진화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제2단계 균형발전계획 시행 등도 내년도 지출 증가율이 예년보다 높아지는 요인 중 하나다.

◇재원부족 해결은 어떻게=기획처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기업은행 정부지분을 매각하며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과세·감면 축소는 올해 연말 대선 등으로 쉽지 않을 상황이다. 정치권이 농어민·중소기업·서민 등 취약계층과 관련된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농어민 면세유 공급을 3년가량 연장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일찌감치 내놓았다.

기업은행 정부지분 매각도 증시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방안 역시 결국 되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못된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FTA 보완대책도

미얀마서 24년째 복역 아웅산 테러 주범 강민철씨

“남·북 어느 곳도 가기 싫다”

곧 북-미얀마 외교관계 복원

지난 1983년 미얀마(옛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의 주범 북한요원 3명 중 한 명인 강민철씨가 북한과 미얀마 간의 외교관계 복원 가능성을 앞두고 남북 어느 곳에도 가기 싫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마와디가 23일 보도했다.

미얀마와 동남아 일대 뉴스를 다루는 이마와디는 이날 같은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한 정치범의 말을 인용, “강씨는 지금은 미얀마 언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안다”면서 “그는 지금

남북한 어디에도 가기 싫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씨는 특히 북한으로 돌아가면 배신자로 간주할 것이고, 한국으로 가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한 죄로 법정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어 가기 싫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마와디는 전했다.

현시 읍서버들은 만약 미얀마가 아웅산 테러 이후 24년 만에 북한과 외교관계를 복원하면 미얀마 내 최장수 외국인 정치적 범죄자로 분류돼 있는 강씨의 지위에도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공군참모총장 정비사 체험

김은기(오른쪽)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KF-16 전투기 ‘정비불량’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공군 추스르기에 나섰다. 24일 추추에 있는 제19전투비행단을 찾은 김총장이 정비사들과 함께 1일 정비사 체험을 하고 있다.

김은기(오른쪽)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KF-16 전투기 ‘정비불량’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공군 추스르기에 나섰다. 24일 추추에 있는 제19전투비행단을 찾은 김총장이 정비사들과 함께 1일 정비사 체험을 하고 있다.

농어업용 면세유 3년 연장 추진

열린우리당 “고령화·한미 FTA 등 어려워진 농어촌 사정 고려”

열린우리당은 24일 올해 말 폐지되는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2010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재경부 김석동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이기우 공보부대표가 밝혔다.

이 부대표는 “고령화와 한미 FTA 추진 등으로 어려워진 농어촌 사정을 고려했

다”며 “농가는 연 100만원, 어가는 97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면세유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 사용 농기계 등에 RFID(무선신식) 장치를 설치해 실제 사용 여부를 농·수협이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면세유 불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엑스포유치, 기업이 뛰어아



홍행기

사회2부 차장

2012세계박람회 여수유치를 위한 외교전이 구체화되는 느낌이다. 오현섭 여수시장과 이인기 국회의원, 김병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등이 23일부터 체코와 슬로바키아, 터키를 방문해 세계박람회 여수유치 지지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13일 성공

적으로 마무리된 세계박람회기구(BIE)의 여수 현지사설에 뒤이는 것으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외교전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번 방문이 눈길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2010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이었던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이다. 정 회장은 기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 준공식 및 현대차 체코공장 기공식에 참석하는 공식일정을 소화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수상을 만나 세계박람회 여수유치를 지지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2010년 세계박람회 당시 중앙유치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이번 체코 방문에 동행하는 전직 외교관 김대성(64)씨는 이와 관련 “각국 수반들은 대사는 만나주지 않아도, 기업인이라면 ‘과장님’도 밟고 만나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며 “현대자동차의 지원은 여수 유치에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그 이유로 “정부차원에서 외국 정부를 상대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기업들은 투자유치, 경제협력 등을 통해 훨씬 손쉽게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 대기업의 투자유치 및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서는 이들 기업의 ‘여수 지원 요청’을 무시하기 어려우며, 결국 오는 11월 박람회 유치를 확정하는 BIE총회 투표에서 각국의 투표방향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기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또 다른 대기업의 여수박람회 지원의사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낳고 있다. 중앙유치위원회 김윤호 유치1팀장은 이와 관련 “국내 대기업들도 ‘여수박람회 지원’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활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해외국가별 네트워크 및 영향력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업 총수들을 만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강점이 있는 유럽권 국가를 말고, 삼성과 엘지는 중동권 국가를 담당하는 형태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삼성과 엘지 등 대기업이 여수박람회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김대성 전 사무총장의 지적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redplane@kwangju.co.kr

국회 ‘3대법안’ 일괄처리 진통

사학법 재개정 싸고 찬반 격론 재연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3대 정쟁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놓고 정치권이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원내서열들 사이에는 회기내 일괄처리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었지만 정작 내부 추진 과정과 세부 협상이 순조롭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우리당 내부를 다시금 들쭉서놓고 있다.

전날 양당의 정책라인이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과정에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와 이사회가 동등 비율로 참여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당내 개혁성향 의원들은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25일 오전 열리는 우리당 의총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의 찬반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특히 신진보연대를 이끄는 신기남 의원 등 개혁성향 의원들이 의총에서 집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낼 태세다.

우리당 지도부가 이날 공개석상에서 “최종 합의된 것이 없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반발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당 협상팀의 분위기가 강경해지고 있다. 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전채회

정책의장과 접촉, 학운위의 추천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의 ‘수정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놓고 학운위와 이사회는 추천비율을 동수로 한다는 기존 안과 달리 학운위 추천비율을 과반수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채회 정책위의장은 “당초 모든 사항을 5대 5로 하기로 했다가 당에 돌아가서 퇴짜를 맞았으니 다른 제안을 하는 것 같은 데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도 내부 강경론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내 원칙론자들이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산강 문화의 뿌리, 생명의 땅 나주!

광주일보 창사 55주년을 축하합니다

- | | | | |
|-------|-------|---------------|------------|
| 나주시청시 | 장 신정훈 | 동신대학교 총 | 장 정기언 |
| 나주시의회 | 장 나익수 | 나주대학 학 | 장 조대훈 |
| 부의 | 장 김덕수 | 농협나주시지부 | 지 부 장 나승운 |
| 의원 | 원 강인균 | 한국농촌공사 | 지 사 장 한경태 |
| 의원 | 원 김세곤 | 나주지사 | 임 직 원 일 동 |
| 의원 | 원 정광연 | 나주축산농업협동조합 | 지 점 장 조태웅 |
| 의원 | 원 정찬결 | 한국전력공사나주지점 | 조 합 장 이상계 |
| 의원 | 원 홍철식 | 나주배원예협동조합 | 조 합 장 일동 |
| 의원 | 원 김성재 | 나주시13개농협 | 공 장 장 구자춘 |
| 의원 | 원 김양길 | (주)LG화학나주공장 | 회 장 정창선 |
| 의원 | 원 김철수 | 중흥골프&리조트 | 조 합 장 박성배 |
| 의원 | 원 김판근 | 골드레이크C·C | 원 장 박용선 |
| 의원 | 원 박종관 | 광주·전남인삼농협 | 조 합 장 박용선 |
| 의원 | 원 강정숙 | 나주중앙병원 | 조 상 준 |
| 의원 | 원 박영자 | (주)서원 | T.336-4005 |
| 의사국장 | 장 김희명 | (폴리메탈)피프스제조업체 | T.333-7639 |
| 나주경찰서 | 장 정찬명 | 나주현대칼리지 | T.333-5055 |
| 나주소방서 | 장 이재명 | 소고기서비스전문유통업 | |